



농어촌공사 나주시사, 저수지 현장점검 통해 안전관리 강화

승인 : 2026-05-06 14:54:37

물관리 설명회에 농업인·수리시설 감시원 등 150여명 참석



류화열 농어촌공사 나주시사장이 6일 나주배원예농협 대회의실에서 '2026년 물관리 현장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가 6일 나주배원예농협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운영대의원, 수리시설감시원, 지자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화이팅을 외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동준 기자

아시아투데이 신동준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안정공급과 수리시설 안전관리에 나섰다.

나주시사는 6일 나주배원예농협 대회의실과 대호저수지 일원에서 농업인과 운영대의원, 수리시설감시원, 지자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용수 공급계획과 수리시설 관리방향을 공유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집중호우 등 물관리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가 기상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했으며, 농지은행 사업 안내와 안전관리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이어 대호저수지 현장에서 시설물 점검 방법과 안전관리 요령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농업인과 물관리 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영농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수리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했다.

류화열 지사장은 "농업용수 관리는 한 해 농사의 출발점이자 안전영농의 핵심 기반"이라며 "기후변화로 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참

여하는 소통형 물관리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사는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물관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가 6일 '2026년 물관리 현장 설명회'서 광주지방기상청 강사 초청 '기상정보 활용 교육'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동준 기자

신동준 기자 sdj0523@asiatoday.co.kr